

KSL 학습자의 문식력 향상을 위한 웹 기반 교육의 담론

—비판적 언어교육의 관점으로

지현숙 배재대학교 부교수

- * 본고는 2013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국어교육학회 5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본론: KSL 학습자 대상 문식력 교육의 논의
 - 1. 비판적 언어교육관에서 바라본 KSL 학습자의 문식력
 - 2. KSL 학습자의 문식력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
 - 3. 웹 기반 문식력 교육과 KSL 학습자의 연계
- III. 결론

I. 서론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본다. 최근 들어 학문 간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생태주의, 다문화, 정체성, 언어 인권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담론들을 열어 가고 교육적 토대들을 마련해 가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세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어가 제2언어(KSL)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마찬가지이다.¹

1 본고의 첫머리에 ‘한국어가 제2언어(KSL)’인 학습자의 개념 정립부터 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방법론, 교수도구 선정 등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제1언어’는 모국어, 토박이어, 능숙한 언어 등과 동의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안에서 ‘습득’한 언어, 숙련도가 가장 높은 언어를 말한다(Stern, 1995 참조). ‘제2언어’는 두 번째(로 ‘학습’하게 된) 언어, 부차적 언어 등과 동의어로서 모국어 다음으로 잘 하는 언어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다수언어(강한 언어, 지배언어)권에 정착해 살면서 행정적, 법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제2언어’이고 이와 거리가 먼 여타의 언어는 ‘외국어’라 구분하고자 한다. 소위 ‘다문화 배경 학습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다소간의 용어의 혼란이나 오용이 있는 듯한데, 필자의 정의대로라면 KSL인 학습자의 주류는 결혼이주여성이며 그 밖에 중도입국자녀, 장기간의 거주를 전제로 한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태어

그들은 다수언어가 한국어인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에 지금까지의 KSL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교육 이데올로기를 합의하고 구축해 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의 기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에 초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간을 배제하고 형태와 체계를 중심으로 KSL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계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을 규격화하고 그들이 산출한 언어를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 단위로 분석하고 귀납적으로 검증해 내는 실증주의적이고 비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해 온 듯하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들을 정량화하여 입증하려는 연구가 환영받고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다.

KSL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분명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나 교수자는 교육적 처방을 내리고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게 한국어가 전부일 것인가? 아닐 것이다. KSL 학습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와 분명히 구분된다. KSL 학습자의 주된 대상층은 단연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부름으로 입국한 자

난 아동은 한국어의 결핍과는 무관하게 ‘한국어가 제1언어’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일각에서 ‘다문화 배경(KSL) 학습자’에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비롯하여 탈북학생을 포함하거나(원진숙, 2013: 271), “한국에서 양 부모가 한국인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어를 익히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중도입국자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정남, 2012: 179).”나 ‘KSL 한국어교육’이란 “한국어가 주류언어인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목표언어로 가르치는 일체의 교육 행위(최용기, 2012: 90)”로 바라보는 것과 필자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덧붙여 필자는 여전히 개념 정립과 개칭이 심각하게 필요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도 ‘이민자가정’이라는 용어(장한업, 2012: 12)로 바라보고 쓰이는 게 한국의 맥락에서는 합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녀(성상환 2010)”인 중도입국학생 6천명 남짓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때 일반 성인 학습자와 어떠한 교육적 차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은 편의적으로 ‘다문화 학습자’로 묶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살림과 육아, 시부모 공경, 아르바이트나 직업 생활 모두를 잘 하는 슈퍼우먼이 되도록 유도하고 부모의 이민이나 이주로 한국에서 크게 된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겐 빠른 시간 내에 주류언어인 한국어의 숙련도를 높여 단일 언어 사용자인 한국인과 공존하고 공교육 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급급하여 표준교육과정을 짜고 표준을 지향하는 종이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J-TOPIK 등과 같은 고부담 시험까지 설계하는 정책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한국어 숙련도가 한국에서 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립의식을 길러 주고 배우자와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배려하고 자녀의 교육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논자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본론에서 이를 풀어 가고자 한다. 첫째, 왜 KSL 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문식력’ 교육이 더 갈급한가? 둘째, KSL 학습자의 문식력 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웹 기반 문식력 교육은 KSL 학습자를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II. 본론: KSL 학습자 대상 문식력 교육의 논의

1. 비판적 언어교육관에서 바라본 KSL 학습자의 문식력

문식력(literacy)의 개념은 그 스펙트럼이 길고 방대하다. Baker(2006)

는 문식력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보고 두 언어를 잘 읽고 쓰는 사람은 보다 성공적이고 취업의 문이 넓고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단순명료한 개념으로 문식력을 정의하고 KSL 학습자의 문식력 교육을 ‘웹(web)’이라는 교수도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말하기·듣기 기술은 한국에 이주하면서부터 남편을 비롯한 가족 및 친지, 이웃 공동체 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지만 문식력 즉, 읽기와 쓰기는 교육기관이나 별도의 교재, 교수도구를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상당 기간 받아야 숙달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때 “말하기 학습에서 습득한 어휘 및 언어 구조는 읽기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이다(Baker, 2006: 117).” KSL 학습자에게 문식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국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나 능력 있는 학부모가 되기 위해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는 말하기·듣기 학습을 통해 상호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복잡한 책들을 유창하게 읽어 내고, 독립적으로 읽고, 비평적으로 읽기를 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읽기와 쓰기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고 느리고 천천히 성장한다(Baker, 2006: 116-119).

돌아보면, 서구 근대 보편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의 억압 구조는 탈식민주의, 비판이론 등을 통해 응용언어학 학술 담론의 하나가 되었다. 거시적, 대안적,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신념에 집중하는 비판적 응용언어학은 아직은 주류 담론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Morgan, 2007; 신동일, 2012). 비판적 언어교육관은 기존의 문법과 어휘에 집중하고 이를 체계화·규범화하는 것에 주력하는 교육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시각으로 언어교육의 권력을 바라보고 담론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비판적 언어교육관은 교사 대 학습자라는 이항 구조하에 실증주의적으로 언어 교육을 처방하던 것에서 벗어나 교육의 비인간화, 언어 능력 시험의 권력화 등을 비판하고 학습자의 권리 회복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민주적 연대와 협력 등을 추구한다. 비판적 언어교육관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KSL과 KFL이 행해온 연구의 주요 경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북미를 중심으로 한 Hymes(1972), Canale & Swain(1980, 1983), Bachman(1990, 1995, 1997), Bachman & Palmer(1996) 등 선행 연구자의 언어 능력 모델을 변형·확장·발전시켜 나간 계보적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 한국어 습득론이나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미국의 1960~1970년대에 풍미했던 중간언어 연구, 1980~1990년대의 교실 상호작용 연구를 적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다루거나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실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셋째, 한국어 능력 기술이나 평가 관련 논의에서는 미국의 ACTFL 문서들, Bachman(1996), Bachman & Palmer(1997) 등의 영향이 컸다가 최근 들어 공리주의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집성된 유럽공통기준(CEFR)을 수용한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정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보성 연구는 언어 구조적 관점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Hymes(1974)로부터 Bachman & Palmer(1996)에 이르는 연구자들은 “구조주의 언어관에 기초하여 언어를 정적이고 고정된 체계로 인식하면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의사소통 기저능력, 혹은 의사소통 언어 능력 등으로 개념화한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가설과 이론 모델을 주축으로 하여, 인간이 언어를 안다는 것을 일종의 ‘알고 있는 상태’로 보는(지현숙, 2006)” 인지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둘째, 중간언어나 미국의 ESL과 같이 장기간 실재성 높은 언어 입력이 학습자에게 주어져야 입력의 유형, 언어 사용의 수준, 오류의 양상 등이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는데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충분하지 않기에 해당 연구가 수행되기 어렵고 가치 또한 낮다. 또 교실 상호

작용 연구는 Chomsky의 생득주의로부터 언어 습득의 입력, 출력, 상호작용 가설 이론이 등장했고 교실 언어의 입출력의 용량이 상당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캐나다의 몰입식 언어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소위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이나 교수-학습 상황은 교실에서의 교사말, 학습자 언어의 절대량이 부족하기에 이를 정치하게 묘사하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가 어렵다.

셋째, KSL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 연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화되어 있다. 객관성, 신뢰성을 우선하는 실증주의적 평가관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TOPIK으로 권력화되어 있다. 많은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어 학습과 관련한 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시험의 원래 용도가 다른 TOPIK을 보고 있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이 시험의 합격률로 교수력을 평가받고 있는 현실은 암울하다.

비판적 언어교육관은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 준다. 또, KSL 학습자 대상의 교육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사하려는 국가의 정책과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KSL 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육과정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을 주문한다(신동일, 2012: 13).”

2. KSL 학습자의 문식력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

비판이론은 응용언어학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 비판적 언어교육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담론 분석, 문식력, 번역, 평가, 교수법, 언어계획과 권리 등 기존의 응용언어학 연구에 비판적 관점을 보태고 있다(신동일, 2012: 50).

한국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주당 열 시간 내외로 최대 1년간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

게 하였다. 이에 맞추어 ‘한국어(KSL) 표준교재’ 개발, EBS 한국어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J-TOPIK’이라는 평가도구의 개발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이세연, 2012: 199).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KSL 대상 읽고 쓰기의 문식력 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재미있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읽을거리로 주어지고 학습자 본인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쓰기로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문법과 정서법의 연관성을 가르치기 위한 인위적인 문장의 연쇄, 문법 규칙의 암기와 적용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유머가 있고 읽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읽기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읽기를 통해 구축한 의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쓰거나 말하기를 통해 만들어져야 온전한 문식력 교육이 될 수 있다.

둘째, 의미 중심이어야 한다. 읽고 쓰기는 의미를 해석하고 담아내는 기술이며 탐구하고 상상력을 끌어오고 친구를 사귀고 사건을 기록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수단이다. 세부적인 내용 이해 질문으로 읽은 내용을 재미없게 점검하거나 문법적 오류를 고쳐 주는 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영혼을 잠식시킨다. 읽기를 배우는 것은 쓰기를 잘 하기 위함이므로 일단은 많이 읽게 해야 한다. 효과적인 다독 훈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담아내는 것은 쓰기를 잘 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

셋째, 유목적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쓰는 사람은 자신이 쓴 글을 읽는 독자가 분명히 전제되고 글을 쓰는 목적이 뚜렷해야 의욕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는 것이 진정한 쓰기라 할 수 있다. 남편이나 가족을 위한 메모, 일기, 축하 카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SNS 글쓰기, 이메일, 독서 감상문 등이 KSL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쓰기물이 될 것이다.

비판적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KSL 학습자의 문식력’을 확대시키면, 중앙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행사하는 관료적 합리주의, 암암리에 강요되고 있는 기계적 순응, ‘표준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와 규율을 자

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지금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감지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력이 KSL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식력이다. 시대 식구의 호칭을 제대로 쓰고 살림을 잘 살고 육아를 잘 하는 아내, 며느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바라보면, 학습자들은 자본주의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경제적 논리로 한국어 능력, 교육기관, 한국어 시험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편으로 교육 행정가들은 KSL 학습자들을 한국어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혹은 객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쟁적이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교육 환경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KSL 학습자들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협력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에 밀착되면서도 즐거운 활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언어 교육 이론은 언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거짓되고 헛된 욕망을 좇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학습자의 언어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관계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웹 기반 문식력 교육과 KSL 학습자의 연계

웹 기반 문식력 교육은 KSL 학습자의 객체화나 교육의 기술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 내 IT 수준이 제공 가능한 컴퓨터 인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사용료,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력 등을 살려 웹을 활용한 문식력 교수-학습이 가능함을 말한다. KSL 학습자가 문식력을 기르게 되면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자율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성취해 내는 것이다. 1)사회적 관계 확립 및 유지하기 2)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말하기 3)정보 교환하기 4)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거나 배우기 5)주어진 문제 해결하기 6)토론에서 남을 설득하기 7)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기 8)어떠한 성과

를 설명하기 9)취미 공유하기 등.

이세연(2012)은 다문화 배경 학생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초점화하기 어렵고 교수-학습 자료의 중핵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한 현장을 우려하였다. 그는 학교 사정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진 자료를 변형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교육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사이트 100여 곳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장의 교사들이 설문 응답을 통해 다문화 학습자에게 교과를 지도할 때 자료 개발과 활용을 위한 웹 사이트의 자료를 내려 받아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 것과,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을 찾을 때 ‘교사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가장 자주 방문한다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교사들은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http://www.basics.re.kr>) > 인디스쿨(<http://www.indischool.com>) > 아이스크림(<http://www.i-scream.com>) > <http://www.basics.re.kr>)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한국어(KSL) 교육 상담에 유용한 웹 사이트들과 상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다문화 이해 교육에 활용 가능한 웹 사이트를 다양하게 소개하였으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gv.koica.go.kr>)는 다문화 가정 자녀 외 일반 아동 및 학부모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용되고 있는 견학 장소, 다양한 문화 정보를 상설 전시해 놓은 웹 공간으로 평가되어 있어서 문식력 교육에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이세연, 2012: 202-204) 이와 더불어 필자가 개발에 참여한 세종학당 결혼이주민을 위한 ‘한국어라라라’나 재외동포재단의 미주 청소년 대상 틴코리언(<http://teenkorean.net>) 등은 중도입국자녀용 한국어 학습 사이트로 권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웹 기반 교수-학습 콘텐츠만 해도 적지 않아서 이제는 KSL 학습자의 문식력 향상을 위해 잘 부려 쓰고 재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듯하다.

III. 결론

누군가는 KSL 학습자를 가르쳐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짜고 교재를 만들고 시험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화’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KSL 학습자는 여러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기에 다문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직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KSL 학습자가 문식력을 갖추려면 그들의 건강한 언어 자아와 확고한 정체성이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언어 정체성을 가진 시민, 느리지만 끝까지 이중언어를 학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적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워 주고 키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KSL 학습자에게 ‘스마트교육’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어떤 교육이든 ‘스마트함’을 지향하지 않을 리 만무하거나 K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스마트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갈급한 것은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 마디라도 더 한국인과 한국어로 말하고 ‘단일 언어를 쓰는 한국인과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어떤 시민으로 성장할 것인가?’의 지향점을 세우고 당당하고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지금’, ‘현재’ 당면한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문식력’이다. 그러한 문식력 교수-학습의 구체적 실천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문화센터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고, 청소년기의 KSL 학습자에게 선호되고 적용이 용이한 웹 기반 교육은 한국어교원자격을 갖춘 젊은 한국어교사가 튜터(tutor)로 관리하고 보조하는 것이 옳다. 비판적 언어교육관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KSL 학습자의 문식력에 관한 논의가 계기가 되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논의가 더욱 진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기 바란다.

* 본 논문은 2014. 1. 30.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신동일(2012), 『한국의 영어평가학4—사회문화편』, 한국문화사.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한국어교육학회 27(회 정기학술대회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 발표자료집.
- 이세연(2012),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KSL) 교육」,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담당 교원 연수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서울교육대학교.
- 장한업(2012), 「한국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담당 교원 연수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서울교육대학교.
- 지현숙(2006), 『한국어 구어문법과 평가 I - 이론편』, 하우.
- _____(2008),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 교육'을 넘어—」, 『한국언어문화학』 7-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2012), 「한국어(KSL) 말하기교육론」,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담당 교원 연수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서울교육대학교.
- _____(2013),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韓國語文化 能力 習得에 관한 生涯史的 研究」, 『어문연구』 160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 383-403.
- 최용기(2012), 「한국어 교육 정책론」, 『다문화적 한국어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KSL)담당 교원 연수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서울교육대학교.
- 한경구(2008),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Baker, Colin(2006), 정부연 옮김, 『이중언어교육 가이드』, 넥서스.
- Stern, H. H.(199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심영택 외 역,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도서출판 하우.

KSL 학습자의 문식력 향상을 위한 웹 기반 교육의 담론: 비판적 언어교육의 관점으로

지현숙

KSL 학습자는 다수언어가 한국어인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로서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된 대상층이다. 필자는 비판적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KSL 학습자의 문식력 개념을 확대시켜 중앙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행사하는 관료적 합리주의, 암암리에 강요되고 있는 기계적 순응, ‘표준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와 규율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였으며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감지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력이 KSL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식력이라고 보았다.

본론에서는 KSL 학습자의 문식력 향상을 위해서 읽기 쓰기 교육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 중심이어야 하며, 유목적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함을 원리로 제시하였고 건강한 언어 자아와 확고한 정체성이 근간이 됨을 주장하였다. 문식력 교수-학습의 구체적 실천은 지금까지 개발된 적잖은 한국어교육 혹은 다문화 관련 웹 기반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문화센터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청소년기의 KSL 학습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을 갖춘 젊은 한국어교사가 튜터(tutor)로 관리하고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언어교육관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KSL 학습자의 문식력에 관한 본고의 논의가 계기가 되어 KSL 논의가 더욱 진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비판적 언어교육관, 문식력, 결혼이주여성, 웹 기반 교육

ABSTRACT

The Research of web-based Korean Instruction for KSL learners improving literacy based on Critical View

Jee, Hyun-suk

The main target learners of TKSL are married immigrant women, so far nearing 15 million. Based on Critical View, I extended the concept of KSL learner's literacy, so that it can include the learner's ability to criticize: 1) the bureaucratic rationalism exercised by multi-cultural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2) the mechanical compliance or the 'standardization' that has been forced covertly.

In this study, I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KSL learner's literacy. First of all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should provide interesting learning experiences. It also should be meaning centered, purposeful, and authentic. I also argued that developing healthy language self and stable identity should base the literacy education.

Married immigrant women want to improve their Korean proficiency using media, such as TV and Internet. Therefore,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king use of the already existing web-sites for Korean learner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KSL learner's literacy education. I hope this study, which calls for refreshed attention to the web-based Korean education for improving KSL learner's literacy, can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TKSL for married immigrant women.

KEYWORDS TKSL, literacy, critical view, women of immigrant, web-based instruction